



웃음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이요 신께서 내리신 위대한 선물이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2시간씩만 웃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쁜 일만 생긴다(구세주의 말씀).”

사람이 웃을 때 피가 맑아지고 혈액 순환이 활발해진다. 통증이나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동맥이 확장되어 혈압을 낮춰준다. 순환기의 청소(내장 마사지)가 이뤄진다. 암세포도 파괴시킬 위력을 가진 NK세포(하나님의 생명물질)가 발생된다고 한다.

또한 웃으면 복이 온다. 웃는 집안에 복이 찾아온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억지 웃음도 같은 효과를 낸다. 웃음이야말로 내 마음으로 초대하는 가장 화려한 초대장이다 등 웃음에 대한 호평(好評)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혜로운 상인은 손님이 오실 때마다 잘 웃는다고 한다. 지나가던 손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상인의 얼굴을 보면 ‘저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예감으로 이끌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무뚝뚝한 얼굴로 별로 반기지도 않는 상인을 보는 순간 손님은 발길을 돌리게 된다.

“즐겁지 않는데 어떻게 웃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보면 행복해진다. 그러니 그냥 무뚝뚝하고 웃는 것이 좋다. 또한 같이 웃으면 혼자 웃는 것보다 3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함께 모여 무뚝뚝하고 웃어라. 그러면 건강이 찾아온다.

지금 웃음의 효과가 일반 대중에도 널리 알려져서 웃음을 적극 권장하는 단체도 생기고 의학계에서도 웃음을 통하여 치료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고, 심지어 웃음건강박수라는 이름으로 웃음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곳도 있지만 구세주께서 30년 전에 이러한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웃음에 대한 얘기가 전혀 공론이 되지 않았었다.

더욱이 구세주께서는 웃음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신다. 놀라운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웃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발산되므로 웃고 있는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인 셈이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는 속담이 진리인 셈이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7남매였다. 어머니는 먼저 월남하여 서울에 자리를 잡으시고는 우리 가족들을 통 통 몸 전체를 흔들면서 웃는 웃음이 다. 이런 웃음이야말로 ‘신(神)나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무리 웃음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멸소탕, 박멸소탕”하고 끝내면 마귀도 죽이고 건강도 얻는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사람은 항상 미소를 잊지 말고 매사에 성실히 임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이긴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해만옥 승사

원고 모집

성도님들의 귀중한 경험담 및 입문수기를 모집합니다. 자유유법을 치열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영생대도(大道)의 길을 가는 구도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한 지혜의 말씀이나 경험을 진솔하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월문수자

첫회. 절망으로 온갖 병이 생기다

영생의 뜻대로 믿고 따랐던 영모님께서 “영생의 복은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니 영생의 희망이 꺼져버려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다

내 고향은 한반도 북쪽 함흥이다. 내가 전도관을 거쳐 현재 구원의 방주 승리제단에 있기까지 60년 신앙생활을 인내로써 해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는 시집은 지 사흘 만에 할머니와 이모할머니의 뜻에 따라 교회에 나가면서 성경학교 3년을 다니셨는데 우리 가족 11식구 모두를 6.25가 터지기 전 1947년에 데리고 월남을 하실 정도로 결단력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분이셨다.

공산당이 싫어 월남하다

어머니는 오빠와 나를 주일학교에 보내셨다. 오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으니 아마 난 유치반이었을 것이다. 주일학교에 간 첫날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빠는 날 내동댕이치고 번개같이 사라져 버렸다. 난 기도를 붙잡고 어쩔 줄 모르고 서있었는데 6학년 언니들이 와서는 예쁘다고 자기에 반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거기서 6학년 언니들과 같이 1년을 공부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남 돕는 일을 좋아하셨다. 어린 마음에 뭇 때문에 남 좋은 일을 하느냐고 물으면 “다 너희 후손을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라고 하셨다. 삼대계 적덕(積德)을 한 집안의 후손이나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격암유록에서 남사고 선생이 말씀했는데 그런 어머니와 할머니 덕에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7남매였다. 어머니는 먼저 월남하여 서울에 자리를 잡으시고는 우리 가족들을 통 통 몸 전체를 흔들면서 웃는 웃음이 다. 이런 웃음이야말로 ‘신(神)나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죄를 안 짓게 날 공공 뉘어주세요”

6.25가 터졌을 때 우리 가족들은 피난을 못가고 서울에 있었다. 그러다가 중공군이 쳐내려온 1. 4후퇴 때 피난을 가게 되었고, 그 난리통에 가족들은 뿔뿔이 헤어졌다. 나 혼자 부산에 내려와 우여곡절 끝에 간호장교 후보생이 되어 군의학교에 다니면서 교회에도 열심히 나갔다. 교회에 다니면서 생기는 여러 의문을 목사님께 물어보았지만 속 시원한 답은 얻지 못했다. 다른 친구들은 아무 의문 없이 교회 잘 다니는데 왜 난 이렇게 의문이 많을까? 무뚝뚝하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죄를



박태선 장로님의 설교 모습

못 짓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강한 빛줄기로 나를 공공 뉘어주셨으면 좋겠다 고 기도했다.

그때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약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천주교에는 하나님의 법(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서 난 ‘바로 그 것이로구나. 그 어려운 하나님의 법이 나를 공공 뉘어 죄를 못 짓게 하겠구나’ 하고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다.

성당에서는 고해성사(告解聖事)라는 것을 한다. 오늘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그것을 계산하여 신부님께 고(告)하고 해결 받는 것이다. 고해성사를 하고 나니 처음에는 죄가 없어졌다 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안했다. 이렇게 죄를 계산하여 고해성사하는 생활을 5년을 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마음은 지꾸 약해지는 것 같았다. 도무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죄를 저서 어떻게 천국에 가나 회개가 있었지만 습관처럼 성당에 나갔다.

전도관에 동생을 따라 나간다

어머니는 부산으로 피난 온 뒤로 전도관에 나가기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전도로 할머니와 내 동생 4명 전부 전도관에 나가게 되었지만 난 전도관을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성당을 계속 다녔다. 내 둘째 여동생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박태선 장로에 미처서 학교도 패러치우고 남산집회, 한강집회, 그리고 서울운동장집회 등등 박장로의 부흥집회라면 열일 백일을 제쳐두고 쫓아다녔다. 난 동생의 열성에 이끌려 1956년에 원효로에 있는 ‘이만제단’에 가게 되었다. 이단으로만 알고 있던 전도관 교인

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기에 감동이 되었다. 박장로님의 설교 말씀을 한번 듣고는 ‘바로 이거다’라고 무릎을 치고 탄복하였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제단이였다. 그 다음날부터 새벽 제단에 나가기 시작했다. 완전히 KO당한 것이었다.

난 박장로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교인들을 이렇게 열광시킬 정도의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녕 하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거세었던 하나님역사의 물결에 동참하게 되었다.

전도관 다닐 때 그냥 걸어도 다닐 적 없었다. 항상 뛰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으니 너무 바빴다. 친구들은 나를 미쳤다고 했다. 그 누구도 나를 말할 수 없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다니면서도 힘든 것을 몰랐다. 영모님 말씀을 이라면 무조건 순종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일관단심 영생을 목표로 달렸다. 영모님 말씀이라면 팔로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믿었다. 영모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영모님께서 전도관을 해산시킬 때에 “예수가 대 마귀다”라고 쳐도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

전도관 30년 신앙은 나에게 있어서 좌도 우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붉은 빛줄기로 공공 뉘어 있던 30년 세월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모님께서 “우리 세대에는 안 돼, 우리 후(後)세대가 받는 복이야”라고 말씀하셨다. 영모님 말씀이라면 팔로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다 믿던 내가 이 말씀에는 반발심이 속에서 올라왔다.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꼭 영생할 거야’

다음 세대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듣고 절망에 빠지다

하지만 영모님께서 다음 세대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듣고 낙심이 되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관을 쫓 쉬게 되었다.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했다. 영생의 뜻대로 믿고 따랐던 영모님께서 “영생의 복은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니 영생의 희망이 꺼져버려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다. 영생의 뜻대로 믿고 따랐던 영모님께서 “영생의 복은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니 영생의 희망이 꺼져버려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다. 영생의 뜻대로 믿고 따랐던 영모님께서 “영생의 복은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시니 영생의 희망이 꺼져버려 마음이 병들기 시작했다.

1987년 1월이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딸과 함께 성심대학교(현 카톨릭대학교)에 입학원서를 내기 위하여 나는 경기도 부천시 역곡으로 향했다. 역곡역 앞에 있는 육교를 넘으면서 “엄마, 나 성심에 붙으면 여기로 이사오자”라고 딸이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안 돼! 여기는 밀실 마귀떼들이 사는 곳이라 큰 일 나. 이리로 이사를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절대 전도관을 배신할 수 없어”

딸의 입학원서를 내고 돌아온 며칠 후에 어떤 두 분이 날 찾아왔다. 알고 보니 그분들은 밀실패(승리제단)였다. 그분들은 박태선 장로님의 사명이 승리제단에서 이루어진다. 덕소제단 정문 위에 여자의 나체상을 세운 이유, 전도관을 해산하는 이유 등등 내가 궁금하게 여기던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승리제단에 가자는 것이었다.

전도관에서는 역곡의 밀실패들을 만나기만 해도 지옥에 간다고 무섭게 악선전을 해놓았었다. 나는 이대로 앉아서 그냥 죽으면 죽었지 영모님 말씀 듣다 교회나 그 밖의 다른 종교에 갈 수 없다고 했다. 영모님의 해산작전으로 전도관을 떠나는 많은 신앙의 형제들을 보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전도관을 절대 떠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날 꾀어갈 수 없다 말야’ 속으로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했다.*

김혜선 권사 / 본부제단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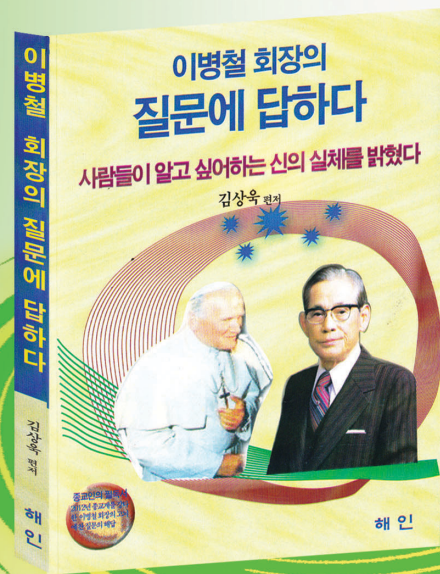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해안으로 풀 어떤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정이는 지옥에 갇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종교인의 필독서

시중 서점점찬 판매중

하나님 (신)

● 하나님이 선하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長生 건강한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